

前 區의장 불법 오락실 관리 前 道의원은 수 천만원 투자

전형준 前 화순군수 3년 구형

5·31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형준(50) 전 화순군수에 대해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형철)는 25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전 전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풀뿌리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형철 부장검사는 “전 전 군수가 재판과정에서 군수직을 사퇴한 점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선거법 위반 횟수가 워낙 많은 데다 범죄가 조직적이고 선거자금 액수도 거액인 점을 감안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전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전 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화순지역 고3 유권자 5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향우회 모임에 참석해 수천 800여 장을 나눠줬으며, 유권자 2천291명의 담비를 대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상이군경회 前 광주지부장 집유

광주지법 형사1단독 송희호 판사는 25일 업무상 횡령과 보조급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상이군경회 전 광주지부장 김모(63)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데다 횡령 횟수와 금액이 적잖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마땅하나, 횡령한 돈을 되갚거나 공탁한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1년 1월부터 2005년 말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상이군경회 광주지부 회계장부를 조작, 공금 5천 300여만원을 횡령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6천800만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교과서 분실 고민’ 고교생 자살

25일 새벽 0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W아파트 9층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오모(15·광주 S고 1년)군이 뛰어내려 숨져 있는 것을 오 군의 어머니(43)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오 군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아들이 껌을 사러 나간다고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아 찾아보니 집 앞 인도에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오 군은 지난 22일 음악 교과서를 잃어버린 후 찾지 못하자 고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평소 매우 내성적이었던 오 군이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광주 북부경찰, ‘조폭이 운영’ 확인

전(前) 광주시 북구의회 의장이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불법 성인오락실 야간 책임자로 근무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또 전(前) 전남도의회원은 이 조폭과 손을 잡고, 불법 성인오락실을 개장하는데 수 천만원의 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북부경찰은 25일 광주 북구의회 의장을 역임한 박모(61)씨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위반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광산구 쌍암동 N 불법 성인오락실에서 야간 책임자를 맡아 관리를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전 전남도의원 오모(57)씨가 이 오락실 운영자금으로 수 천만원을 투자한 혐의를 잡고 달아난 오씨의 뒤를 쫓고 있다.

오씨는 지난 7월 광주 S과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인 김모(39)씨와 광산구 쌍암동에 성인오락실을 개장할 것을 합의, 투자비로 1천만원을 건넨 혐의다.

경찰은 오씨가 오락실에 투자한 돈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신병 확보와 자금 추적에 나섰다.

오씨는 또 “집안 사정이 어렵다”며 일 자리를 부탁한 박씨를 이 오락실에 취직시켰으며, 박씨는 한 달에 200만원(시간당 약 1만7천원)씩 받기로 하고, 이곳에서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2시간씩 일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오락실 개장·운영에 일정한 돈을 투자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 오락실 업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씨 등 중업

원 4명과 투자자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불법게임기 60대 ▲현금 2천500만원 ▲경품용 상품권 3만여 장을 압수했다.

김씨 등은 속칭 딱지 상품권을 손님들에게 지급한 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대가로 하루 평균 1천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한편 지난 19일 개장한 약 60평 규모의 이 오락실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나사’ 게임기에 연타·예시 기능을 추가한 불법 오락기 60대가 설치돼 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불법 개조 오락기 압수. 광주지역 불법 성인오락실 운영에 조직폭력배는 물론 전직 구의회 의장, 도의원 등 지방의원들까지 개입한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이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성인오락실에서 불법 개조된 오락기를 압수하고 있다.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계 없음>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前·現 지방의원들 비도덕적 행위

광주·전남 지역민들 ‘분통·허탈’

광주·전남지역 전·현직 지방의원의 비도덕적 행위가 최근 잇따라 드러나 지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정부가 사행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단속을 벌이고 있는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거나, 졸업장을 위조해 대학에 부정 입학하는 등 일반인으로서도 저지르기 힘든 범죄를 정치인들이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북구의회 A(51·민주당) 의원은 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이었지만, 고창군 모 고등학교 행정계장과 짜고 고교 졸업장을 발급받아 전남 K 사립대학에 부정 입학한 사

실이 드러났다. 광주시 남구의회 B(50·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3년 심장 복지회관 신축공사 당시 남구청과 500만원에 수의계약을 맺은 등 5차례에 걸쳐 3천500만원의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밝혀져 도덕성과 직위남용 논란을 빚고 있다.

한편 지난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학력·경력 허위 기재로 선관위나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단체장·지방의원 후보자는 모두 31명에 달한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광주상의회장 선거 무효

광주지법 첫 조정 결정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임원 선거 무효 불안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조정이 실패했다. 광주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노정희)는 25일 오후 광주지법 305호 조정실에서 노 부장판사와 마형렬 회장, 마 회장 측 변호인, 금호고속 김성산 사장과 김 사장 측 변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1차 조정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핵심쟁점 사항인 마 회장의 임

기 보장 여부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으며, 광주상의 회장 직무대행인 전 도영 변호사가 내놓은 중재안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비공개로 양측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듣고 변호사가 아닌 소송 당사자들을 상대로 직접 입장을 청취해 적극적인 중재를 시도했으나 결국 조정에 실패했다.

법원은 다음달 2일 2차 조정을 갖고 다시 한 번 타협점을 찾을 예정이지만, 결렬될 경우 임원 선거 무효소송은 재판을 통해 결말이 날 전망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연예2차 동림이 대주 피오레 1,300여 부대 중 35부대 353부대 문의 (062)366-4220

휴게텔서 성매매 12명 입건

전남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25일 광주시 서구에 ‘남성 휴게텔’을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해 준 업주 이모(45)씨와 성을 구매해 12명을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공금 13억 횡령 고창에 도피 중 ‘덜미’

○여수경찰은 25일 10억원대의 대학교 기성회비를 횡령한 한모(40)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전 여수대 학교 총무과 경리계에 재직하면서 기성회비 세입 및 지출 업무를 맡아오다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1년 3월까지 기성회비 출납관인을 부정사용해 기성회비 13억5천만원을 빼돌렸다는 것.

○한씨는 횡령한 돈을 주식 투자 등으로 날리고 미국으로 도피했는데, 최근 중국을 통해 국내에 몰래 들어와 고향인 나주의 한 축산공장에서 숨어지내다 붙잡혔다고.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2006 Gwangju International Machinery, Mold, Automation Industry Fair 2006 광주국제기계·금형·자동화산업전 | 관람 안내 | 2006.9.27-30 | KOJ Center | 15개국 150개사 350부스